

## 『십구사략통고(十九史略通攷)』 등 47종 120점

기증자

## 고서연구회

고서연구회는 1982년에 우리의 고문헌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고서동우회’로 시작한 단체입니다. 고서의 수집과 연구를 통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애서(愛書) 정신을 앙양(昂揚)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한국고서연구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이 소중히 간직한 고문헌과 의무 납본 전에 출판된(1965년 이전) 도서들을 국가장서로 등록해 줄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증 전시를 마련해 주심에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람 있고 의미 있는 40주년의 기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홍보 및 애서 정신을 앙양하며 사회적 역할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기증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중앙  
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기증 고문헌

## 『삼안당유고(三安堂遺稿)』 등 3종 4책

기증자

곽형기

50여 년 전 조부님(곽상연)께서 명절에 조상님들의  
슬기와 얼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기증 고서 네 권을 늘 제사상에 올려놓고  
정중하게 절을 하고 추모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6.25 사변 동안에도  
이 책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피난 생활을  
하셨다는 조부님의 말씀이 생생합니다.

기증한 책의 내용들은 모두가 한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 장서  
(藏書)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삶에 반영할 후손들이 없다면,  
이 귀중한 책은 고물로 변할 것 같고 보관하기도  
어려워 훼손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 고문헌과 김효경님과 상의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조상님들의 슬기와 얼이 담겨진  
상소문과 당시 활동 내용들이 전문학자들의  
연구자료가 되고 재조명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조상님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 『안동김씨세보(安東金氏世譜)』 등 53종 99점

기증자

김봉회

어릴 적 안동 김씨 수십 호가 모여 사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산촌 마을에서 지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자주 이사를 다녔습니다. 9살  
아이였던 저는 족보와 여러 고문헌들을 등에  
지고 메고 약 20km의 산로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6.25 전쟁의 여파가 산골에도 미쳐  
집안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졌습니다.

힘든 세월 속에서도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나의 근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항상 근본을 알며 소중히 여기고, 조상에 대해  
예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여 향우회, 종친회 등에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짊어지고 옮겼던 그 문헌들은  
세월의 시련 속에 조금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유무형 문화유산들이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지켜지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면  
선조님께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기증하며 귀하게 보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





## 『의성김씨세보(義城金氏世譜)』 등 13종 20책

기증자

김종규

“인생을 90세까지로 볼 때, 첫 30년은 배움으로 채우고, 다음 30년은 생업에 전력을 쏟으며, 그 이후 30년은 사회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내 인생 모토예요. 돈도 시간도 재능도 되돌려주는 인생을 살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기왕 하는 일 즐겁게 감사해하면서 하고 있어요.”

“종교를 다 떠나 내가 세상에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시대, 이 나라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다 있다고. 우리는 환경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요. 그러니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나를 살게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해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타인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위축되어 있고 남과 비교하려 들어요. 가치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 기증자 인터뷰 글에서 발췌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 『김해김씨세보(金海金氏世譜)』 등 29종 31점

기증자

김종우

할머니(이화수)의 방 장롱 위 한구석에는 아주 오래된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할머니께서 시집오실 때 가지고 온 함가방인데 가방을 열어보니 오래된 고서와 고문서 여러 점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전해 듣기로 할아버지(김현구)는 생전에 당진군청에서 일하셨고, 당시 나름 학식있는 분이라 집 안에는 많은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6.25 때 북한군에 끌려가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 피난 길에 챙기신 책들이 바로 이 함가방에 보관되어 있었던 고문헌들입니다. 할머니께서 2019년에 작고하시고 나서야 저는 가지고 있는 고문헌을 어떻게 할지 알아보았고, 그러던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상담 및 기증을 받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기증자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할머니의 함가방 안에서 60여 년 이상 묵혀져 있던 고문헌들이 이제 사료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후대에 전해져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기증자

김찬수

『도남문집(道南文集)』 등 73종 104점

할아버지(김익곤)께서는 한학자이시면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일으키시고, 자랑스러운 우리 가문을 널리 알리신 분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증조할아버지이신 도남(道南) 김용주(金容輅, 1862-1939)님의 문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도남문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기르던 소를 팔아서 출판비를 마련하여 인쇄하고 지방의 유지들에게 배포하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이신 김용주님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동부5리(토성마을)에 자리를 잡으셨으며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과거를 외면하고 학문 탐구와 실천에 힘쓰셨다고 합니다.

기증한 고문헌들은 김해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과 가락국 서적,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전국의 유지들과 서로 나누었던 문집, 한의학 및 법률 서적, 교지(임명장), 족보 및 가첩 등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회의를 통하여 가문의 자랑이자 조상님들께서 아끼시던 고문헌을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기증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관리하고, 디지털화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마음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기증자

노경석

##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172종 387책

이번에 기증한 자료들은 과학사를 연구할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여 대학교수로 재임하는 30여 년 동안 틈틈이 먼지 쌓인 고서점을 뒤지고 발품을 팔아 장만하거나 인터넷 경매를 통해서 수집하였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조부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자료들은 제가 정년퇴직을 하자 몇 가지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우선은 연구실에 있던 자료들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 또 연구를 이어갈 자신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기보다 기증을 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증자료들은 인문학, 과학사, 수학사, 한의학사 등의 분야에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가 연구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물론이고 우리 가문에서 이루지 못한 연구를 대신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자료를 남겨주신 조상님께 효도를 다하는 길이며 보람이 될 것입니다. 기증을 받아주신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기증자

# 민덕기

## 『동국사략사대문궤 (東國史略事大文軌)』 1종 22책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시절 석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 도쿄의 헌책방 거리 진보초(神保町)를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사 모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수를 정년퇴직하면서 더 이상 연구작업은 접기로 한 저는 이 책들을 어찌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진보초에 가서 되팔아 한 푼이라도 챙겨볼까?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까? 책마다 정이 들고 추억이 깃들여 있는데 그냥 책장에 세워 놓고 바라보며 살까?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 기증하기로 하고 몇몇 대학도서관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도 늦거니와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하게 보관하고 제대로 이용하게 해줄 곳을 찾은 곳이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예상대로 가치있는 책들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근대문헌 포함 총 14종 40책 기증)

기증을 하고 나서 한동안 허전했지만 세월 따라 잊혀져 갔는데 감사하게도 도서관측으로부터 고문헌 기증전을 개최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떠나보낸 자료들이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자료들은 이제 다른 사람과 더 정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부디 가치를 알아주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래오래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 『연암집(燕巖集)』 등 72종 127점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집안에 고서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6·25 사변을 거치면서 대부분 분실, 훼손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전 후 이사 올 때 다행히 이삿짐에 몇 권의 고문헌이 서울로 함께 와서 다락방에 묻혀 있었으나 저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북인(小北人)의 후손으로 소북동일회(小北同一會)에 참석하였는데 회원이신 박형원님, 류기민님, 성세진님 등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헌을 기증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집에 보관 중인 고문헌이 생각났습니다.

보관 중인 상자 안의 고문헌을 살펴보니 고조부께서 소장하셨던 필사본 『연암집』을 비롯하여 고서와 명문, 간찰, 문과명단, 만장(挽章) 등 다수의 고문서가 보관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족들과 의논하여 기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님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고문헌이 개인 소장으로 훼손, 분실 또는 사장(死藏)되어 그 가치가 멸실되지 않도록 사료적 가치로 활용하고 또 그 보존에도 애써주시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도서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증자

민태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기증자

박형원

## 『초정집(草亭集)』 등 7종 7책

유년시절 조모(祖母)로부터 자주 들어온 초정공(草亭公) 박수현(朴守玄, 1605-1674)님께서는 저의 11대조가 되는 분으로 성균관사예를 지내신 소북팔문장(小北八文章)의 한 분입니다. 저는 조상들의 행적과 유고집 번역작업에 참여하며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과 뿌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족보를 연구하게 되었고 관련 기록을 종친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족보 관련 기록을 찾기 위해 방문하다가 우리 세계(世系)인 밀양 박씨 충헌공파(忠憲公派) 족보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충헌공파 최초 족보인 1701년 발간 신사보(辛巳譜)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 고문헌과에 기증 관련 면담을 하면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3차례에 걸쳐 족보 등 고서와 탁본, 고문서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총 20종 130점)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많은 양의 문헌이라 영구보전(永久保全)의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또 여러 후손과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 기증을 결정하였습니다. 귀중한 자료의 전시에 물심양면 협조해주신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  
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 『무쌍언문삼국지(無雙諺文三國志)』 등 2종 3책

기증자

이동숙

저의 아버지는 연극 연출가이자 극작가로 활동한 이원경(李源庚, 1916-2010)입니다. 아버지는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소극장인 ‘삼일로 창고극장(倉庫劇場)’을 설립하셨고, <수선화>, <백의종군> 등의 희곡 집필과 <한여름밤의 꿈>, <춘향전> 등 70여 편의 작품을 연출하시어 무대에 올리셨습니다. 『연극연출론』, 『연극화술론』 등의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하시고, 항상 연극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며 평생을 지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저에게 극장과 분장실은 놀이터였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분장(扮裝) 디자이너가 되었고, 언니도 서양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증한 자료들은 모두 아버지의 책들입니다. 그 중 『무쌍언문삼국지(無雙諺文三國志)』는 아버지가 예전에 삼국지를 주제로 극작을 하실 때 참고로 보셨던 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자료들을 통해 아버지의 삶과 작품을 기억하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기증자

이주영

## 『서전대전(書傳大全)』 등 10종 12책

외할아버지 금파(錦派) 정원화(鄭元和)님의 책을 외손자인 제가 50년 동안 보관해온 것입니다. 성품이 금파라는 호처럼 잔잔한 비단물결 같으신 시골 선비 외할아버지께서는 황성 향교에 다니시며 봄가을로 한 번씩 지역 선비들과 모여서 시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시를 모아서 엮은 책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인근 선비들 가운데서 세필은 가장 잘 쓰셨으며 손수 만드신 병풍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집 잔치나 기제사 때 쓰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외가에 가서 보니 다락에 있던 100여 권 대부분이 소실되고 10여 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분신처럼 느껴져서 남은 책을 다 챙겨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서울살이 좁은 집에서 이사할 때마다 싸들고 다니면서 상하지 않게 보관하려고 노력했고, 외할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꺼내서 뒤적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외할아버지의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소식을 외삼촌과 외사촌들에게도 알렸더니 모두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외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시며 ‘주영아, 잘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 『진암집(進菴集)』 등 2종 2책

기증자

이철화

저는 연안이씨 23대손 이철화입니다.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고문헌을 기증하게 된 것은 성균관대 석사과정 중에 있던 대학원생이 연안이씨 관련 논문을 쓴다고 자료열람을 요청하여 문중과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관련 고문헌을 제공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된 후 자료를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어떨지 집안 형제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2019년 추석에 모여 여러 형제들과 상의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구정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연안이씨 부사공파 문중 이름으로 『진암시집』 등 58종 78책을 기증하였습니다. 이후 또 제가 집안에 보관 중이던 선조의 고서를 2022년에 추가로 기증하였습니다.

책의 보관과 관리가 어려워 분실 및 파손의 염려가 되었고, 선조들이 쓰신 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여 연구자료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기증을 받아주시고 전시를 위해 힘써주시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 『선원속보(璿源續譜)』 등 3종 3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밀양청도종중의 종회장 이광주입니다. 이번에 기증한 자료는 집안에 대대로 보관해 오던 왕실 족보인 『선원속보(璿源續譜)』와 인조의 동생인 능창대군(綾昌大君) 이전(李佺, 1599-1615)을 중조(中祖)로 한 『전주 이씨 능창대군파보』, 수령이 내린 고문서 『전령(傳令)』입니다.

아파트에서 고서, 고문서를 보관하다 보니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던 차에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 기증 관련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온항습(恒溫恒濕) 시설과 보관을 위한 여러 여건을 갖춘 국가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여 종중 관련 자료가 영구히 보존되기를 희망하여 기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계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유하여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고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기증전시와 행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기증자

전주이씨  
인평대군파  
밀양청도종중

국립중앙도서관





기증자

# 최창덕

## 『상서(上書)』 등 42종 42점

어릴 적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향 조부, 증조부, 고조부의 산소 성묘를 하고 묘지기 집에서 음식을 먹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세 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선대의 이야기를 잘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지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상서, 교지, 호구단자 등을 지금까지도 잘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상님의 큰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년퇴직을 하고 족보를 연구하며 다른 분들의 뿌리 찾기를 도와주면서 고문헌을 정리하다가 제가 보관하는 것보다 평소에 족보 열람을 위해 방문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이 영구 보존에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께서 서당 훈장을 하셨고, 재실을 지어서 현판을 하려고 고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증조부와 고조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증하면서 고문서를 통해 고조부께서 통정대부 정삼품 벼슬을 하셨고 노비도 많이 있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과 문중에서 보관하는 고서와 고문서는 학계 연구자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

기증자

# 황인성

## 『방촌선생실기(龐村先生實記)』

1종 2책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부친의 고향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는 중시조이신 방촌(龐村) 황희(黃喜, 1363-1452) 정승의 영당(影堂)과 반구정(伴鷗亭)이 소재하고 있으며 집안 선조들의 묘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반구정 영당에서 음력 2월 10일에 황희선생 탄신제향을, 어린이날에는 사목종중 가족 야유회를 참가하였으며, 집안 행사 또는 가을 벌초 및 성묘 방문 시에도 반구정을 자연스럽게 찾았습니다. 1967년에 집안 어르신들이 반구정을 개축하며 1990년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보아왔습니다. (장수황씨 사목종중 운용위원회 제작의 『반구정 요람』 등 일반 도서도 기증함) 반구정 영당 입구 문의 현판 글씨를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상자인 선친(황낙연)께서 쓰시고 기증하신 바 있어 자연히 중시조에 대해서 가깝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인사동의 고서점에서 『방촌선생실기(龐村先生實記)』 2권을 우연히 발견하여 이를 구입하였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중 국립중앙도서관과 연락이 닿아 이렇게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지식을

모으고, 담고, 잇다